

10월 5일 (월) / 마 13-15

- **내용요약:**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비유를 기록한다. 예수님은 13장에서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1-9절), 곡식과 가라지 비유(24-30절), 겨자씨 비유(31-32절), 누룩 비유(33절), 감추인 보물 비유(44절), 진주 비유(45-46절), 그물 비유(47-50절) 등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다. 14장은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 왕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착각한 기사와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적, 그리고 질병을 고치신 사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1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율법 정신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로(1-20절), 병자를 치유하시는 참된 의사로(21-31절), 양을 돌보시는 위대한 목자로(24, 32-39절), 사단과 추종세력을 정복하는 심판자로(13-14절)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야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 **질문:** 마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 **생각하기:**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야로 영접한 복 있는 자들에게만 천국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들로 말씀하셨다.

10월 8일(목) / 마 22-24

- **내용요약:**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서 셋째 날, 즉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 22장에 계속해 언급되고 있다. 특히 22장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야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혼인 잔치의 비유(1-14절)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합작하여 예수님에게 음모에 가득 찬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지는 왜곡된 모습(15-46절)이 나타나 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형성된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면서 점점 더해가는 음모와 모함에 맞서 예수님께서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시며 책망하시고 있는 부분이다.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자초할 일곱 가지 화(禍)에 대한 선언(1-36절)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끝부분에 언급되고 있다(37-39절). 24에는 말세의 징조(1-14절)와 대환란에 대한 경고(15-28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29-41절)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두 가지 비유(42-51절)가 언급되고 있다.
- **질문:**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충돌했고 화가 선언된 집단은? (23장)
- **생각하기:** 종말이 가까워져 올수록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이다. 역사의 끝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10월 11일(일) / 막 4-6

- **내용요약:** 4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비유들로 구성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1-20절), 등불의 비유(21-25절)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26-29절), 그리고 겨자씨 비유(30-34절), 풍랑을 잠잠케하신 이적(35-41절)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적 권위를 더해주고 있다. 5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장의 끝부분에서(4:35-41절)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계(靈界)를 또한 다스리시는 권세를 거라사 지방에서 입증하셨다(1-20절).

10월 6일(화) / 마 16-18

- **내용요약:** 이제까지 메시야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서 16장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에 따른 메시야이심을 드러내신다. 이러한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당시 종교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베드로의 신앙고백(13-2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고가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24-28절)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17장은 왕(王)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즉,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심으로서(1-13절), ‘영광의 왕’ 이심을,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심으로서(14-23절), ‘권능의 왕’ 이심을, 성전세를 바치심으로서(24-27절) ‘겸손의 왕’ 이심을 드러내셨다. 이러한 사실은 근본상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위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사실을 잘 보여준다(빌2:5-8절). 18장은 가버나움 체류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간의 도덕적 품성 함양을 위해 주신 교훈으로, 크게 겸손(1-14절), 권징(15-20절) 및 용서(21-35절)라는 세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질문:**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17장)
- **생각하기:** 베드로의 신앙고백(16: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야 신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신약교회에 세워질 수 있었던 기초요 반석이었다.

10월 9일(금) / 마 25-28

- **내용요약:** 25장에는 전장과 마찬가지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5장은 조야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 자세를 굳게 지니도록 교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는 열 처녀의 비유(1-13절)와 달란트 비유(14-30절),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31-46절)가 언급되어 있다. 26장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난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한 전반부(1-46절)와 수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한 후반부(47-75절)가 바로 그것이다. 27장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온갖 조롱을 다 겪으신 후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엄숙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됨도 기록하고 있다. 28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 서술한 후,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 **질문:**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무엇인가?
- **생각하기:** 끝고다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엄청난 기쁨과 소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열두 해를 혈류 증으로 고생하던 여인(21-34절)과 회당장 아이로의 딸(35-43절)을 고치심으로 메시야적 권능을 더욱 나타내셨다. 제2차 갈릴리 사역이 마감되고 6장은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천국 진리를 가르쳤지만 결국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사건(1-6절)으로 인해 제2차 갈릴리 사역은 마감되고 선택한 12 사도들을 각처로 파송하심으로 제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7-13절). 한편 6장에는 세례요한

10월 7일(수) / 마 19-21

- **내용요약:** 19장에는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신 예수님께서서 유대지방으로 가서 사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전파와 사역을 개시하자마자 예수님께서서는 이혼과 결혼문제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찬 질문을 받으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를 물리치셨으며(1-12절), 계속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잘못된 개념들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중심으로 교훈하셨다(13-30절). 20장에는 예수님께서서 행하신 비유와 예언, 그리고 교훈과 이적이 골고루 나타나 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1-16절), 십자가 수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17-19절), 섬김의 도에 대한 교훈(29-34절) 등이다. 20장은 진정 메시야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다. 21장은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일어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결 사건, 둘째 날에 일어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 셋째 날에 일어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두 아들의 비유 및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언급되고 있다.
- **질문:**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은? (21장)
- **생각하기:** 예루살렘입성은 메시야로서의 승리의 입성이었지만 나귀를 타시고 종려가지의 혼들에서 주님의 겸손의 덕을 보여주셨다.

10월 10일(토) / 막 1-3

- **내용요약:** 마가복음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1장에는 세례요한의 선구자적 사명과 활동이 간략히 언급된 다음(1-8절),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과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사건이 언급된다(9-13절). 이어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갈릴리 사역에 대해 언급되는데 4명의 주요 제자(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를 부르신 사건과 각종 병 고치는 사역들을 기록한다 (21-45절). 2장에는 이미 전장 후반부에서 언급된 바 있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중풍 병자를 고친 사건(1-12절)이 그것이다. 그리고 갈릴리호숫가의 미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바 있는(1:6-20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멀리받은 신분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시는 사건(13-17절), 금식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언급된다. 3장에는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교훈하시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1-6절)이 언급되고 있다.
- **질문:** 예수님은 안식일 의미를 교훈하기 위해 무엇하셨나?(3장)
- **생각하기:**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 질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마 9:1-8; 눅 5:17-26).

이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한 사건의 전모가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14-29절).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30-44절)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45-52절), 그리고 병자들을 계속해서 고치신 사건(53-56절)이 언급된다.

- **질문:**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은? (4장)
- **생각하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은 결국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심과 아울러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야이심을 분명 증거한다.